



정유업계 시설고도화 투자촉진방안

- 동력자원부 -

동력자원부는 石油소비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중질유 분해사업과 탈황사업 투자촉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.

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자금지원, 법인세감면, 관세감면 등을 총망라한 종합지원책으로 최근 휘발유, 등유, 경유 등 고급석유제품 소비급증추세와 환경기준강화로 인한 저유황석유제품 소비급증추세에 공급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.

1. 시설개요

● 중질유분해시설

상압중류시설에서 나오는 重質油를 촉매를 사용하여 고온·고압에서 분해하여 LPG, 나프타, 燈·輕油 등 輕質油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石油需要의 경질화에 대비한 필수시설임(Hydrocracking, Fluid Catalytic Cracking)

● 중질유탈황시설

상압중유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고온·고압하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硫黃을 분리·제거하여 유황함유도가 낮은 重質油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기준강화로 불가피하게 추진

● 건설 및 투자계획

시설능력	총사업비	'90 소요	건설기간
240千B/D	10,938億원	2,942億원	'90~'93末
분해 : 120千B/D			
탈황 : 120千B/D			

2. 지원배경

● 石油수요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로 중질유분해 및 탈황 시설투자가 시급하나, 별도의 투자유인책 없이는 원활한 민간투자 곤란

-정부의 油價규제로 민간투자 기피

· 충분한 투자수익확보 곤란, 대규모 투자재원조달 곤란

-특히, 환경보호 및 산업경쟁력 제고등을 위한 油價구조 왜곡은 민간투자 기피현상을 심화

· 例 :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 축소, 등·경

유가격의 저가수준 유지

● 최첨단기술로서 국내기술만으로는 개발·설치가 불가능

-전세계적으로 특허 보유회사가 소수에 불과

(美國UOP, UNOCAL, Shevron, Kellog, 프랑스IFP, 네덜란드Shell)

* 日本도 이 분야에는 기술특허가 없음

●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산업

-국내유가 통제로 인한 투자수익률 규제로 민간기업은 투자를 회피

중질유분해 및 탈황

投資費(億원)	2,700	단순정제 800
(60천B/D기준)		

3. 지원조치

● 특별설비자금의 지원

-중질유분해 및 탈황사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

-첨단산업용 특별설비자금 융자대상에 포함

· 연리 8%, 대출기간 10년 이내

● 투자세액공제

-설비투자액의 10%(수입설비의 경우는 3%)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

● 기술개발준비금 損産산업범위 확대

-중질유분해 및 탈황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지정

-당해 課稅年度 매출액의 3%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 (일반제조업은 2.5%)

● 機資材 및 원료의 관세 감면

-脱黃施設의 경우 관세법상의 특정물품인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로 지정하여 도입기자재 관세액의 80%를 경감

-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에 1% 할당관세를 적용 (일반원유 관세 10%)

●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

-4·4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1년간 여신규제대상에서 예외 처리

-투자기간 전반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조치 협의중 ♣